

지역주의와 지역화의 맥락에서 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결성의 의미*

金永珍

I. 서론	A. 유라시아주의
II. 신지역주의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지역주의	B.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화
A. 글로벌화 시대의 신지역주의	IV. 유라시아 통합 과정에서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B.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V. 결론
III. 유라시아주의와 유라시아의 지역화	

한글초록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와 글로벌 지역화의 맥락에서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할 경우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EAEU 프로젝트는 글로벌화의 ‘도전’에 대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글로벌 사고의 관점에서 EAEU의 개념적 근거는 세 가지 이론적 기둥에 의존한다. 글로벌 지역화의 개념, 다극적인 세계, 그리고 심장지대(Heartland)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그것이다. 둘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에서 정부 간 협력은 정부와 국가하위 및 초국가적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교차하는 통합 프로젝트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구소련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국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구소련의 부활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EAEU는 글로벌 지역으로 이루어진 다극 체제에서 의미 있는 일극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AEU의 미래는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유효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정치 기구로 전개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넷째, 유라시아 통합과정은 지금까지 주로 ‘하향식(from top to bottom)’ 접근을 통해 진전되어 왔는데, 관세동맹 3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통합의 과정과 동기는 또한 ‘상향식(from the bottom)’ 접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즈니스계가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주제어 : 지역주의, 지역화,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 통합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B00013)

I. 서론

소련과 코메콘 그리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중부유럽 국가들과 구소련의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유럽이라는 고향의 품에 귀의했다. 구소련의 나머지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들 국가는 느슨한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의 틀 내에 잔류하였는데, 이 기구는 수많은 공동행동을 만들어내고 상징적인 형태의 단합을 장려했지만 경제·정치적으로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지는 못했다.¹⁾

구소련 지역의 모든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쇠퇴한 원인은 세계경제체제로부터 분리된 데 기인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시장메커니즘 하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해 온 서구의 열강과 정치·경제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으나 개방적인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은 상승했다. 러시아는 소련시대에 누렸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했고 러시아 국민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 또한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의 정체와 쇠퇴는 자유주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야기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CIS 국가들의 경제적 정체와 산업의 쇠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이들 국가로 하여금 유라시아주의를 구상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을 결성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1990년대 중반 이래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합과정에 부합하면서도 역내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뒷받침할 수 있

1)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결성에 이르기까지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는, 김영진·윤인하,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유라시아연합 구상의 조건과 과제,” 『동유럽발칸연구』, 제38권 5호 (2014), 205-211쪽을 참조.

는 질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분명하게 인식했다. 구소련/유라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통합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결성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를 차지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초국가적 경제적·정치적 동맹이다. 이 구상은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994년에 행한 모스크바대학의 연설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프로젝트는 명확한 구심력을 결여한 채 실행의 장애에 직면했으나, 2011년 10월 푸틴이 이 구상을 옹호하면서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었다.

2011년 11월 18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정상들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EAU)²⁾을 2015년에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글로벌 지역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세대의 통합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들 세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유라시아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유라시아연합의 주창자들은 이 통합 틀이 세계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심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³⁾

유라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향후 이 지역에서 형성될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왜 무슨 이유로 결성되었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기존의 지역통합

2) 통합의 발전단계로 볼 때 유라시아연합(EAU)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결성 이후 일정한 발전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단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초기의 통합 시도과정에서 유라시아연합은 다소 추상적인 목표로 설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2013년 말경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으로 서서히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나 통합의 발전단계를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3) Н. Назарбаев, Нурсултан,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от идеи к истории будущего,” Известия (25 октября 2011), <http://izvestia.ru/news/504908> (검색일: 2015.12.20); В. Путин,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Известия (3 октября 2011a), <http://izvestia.ru/news/502761> (검색일: 2015.12.20); А. Лукашенко, “О судьбах нашей интеграции,” Известия (17 октября 2011), <http://izvestia.ru/news/504081> (검색일: 2015.12.20).

구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향후 어떤 국가가 유라시아 통합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더욱 어려운 문제는 이 구조의 최종 목적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동맹이 결성될 것인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주의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대상이다. 그것은 이른바 전 세계의 지역주의에서 ‘첫 번째 파도’와 ‘두 번째 파도’와는 구별되는 ‘세 번째 파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첫 번째 파도’는 대체로 폐쇄적인 역내무역제도와 수입대체전략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파도’는 때로 ‘개방적 지역주의’라고 언급되는데, 비차별적 무역자유화 및 대외개방과 양립하는 지역통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체계에서 ‘세 번째 파도’는 선별적이고 협의를 거친 개방, 그리고 전통적인 특혜 무역협정의 부활로 나타난다.⁴⁾

소련 해체 이후의 지역통합을 연구하는 경우, 이 지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발라스 구조⁵⁾에 기초하여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분야에서 많은 응용연구가 이루어졌는데, 1) 관세동맹(CU)이 산업 간의 균형에 미친 효과의 측정, 2) 무역흐름에 대한 중력 모형, 3) 상호 투자, 노동 이주, 금융·통화 협력의 최적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종합적인 통합이론은 경제이론인 동시에 정치이론이어야 하고, 각각의 모델은 경제변수와 제도변수 모두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⁶⁾ 한편, 구소련의 맥락에서 기존의 지역통합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지역통

4) M. Molchanov, “The Eurasian Union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regional order in Central Asia,”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FLASCO-ISA Joint Conference, Buenos Aires, Argentina, (July 23-23, 2014), p. 2.

5) 발라스(1962)는 통합의 수준에 따라 경제통합을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완전한 경제통합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New York: Routledge, 1962), p. 2 참조.

6) 비노쿠로프는 완전한 지역통합이론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제관계이론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2) 또한 해체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해체이론이어야 한다. 3) 통합에 실패한 시도와 성공한 시도 모두를 설명해야 한다. 4) 통합의 출발단계뿐만 아니라 심화과정과 확대과정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 E. Vinokurov, “Accelerating Regional Integration: Directions for Research,”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10* (2010), p. 24.

합 이론가들의 연구결과는 이 지역의 통합을 해석하는 데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다.⁷⁾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와 글로벌 지역화의 맥락에서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1월에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이르게 된 유라시아 지역주의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글로벌화 시대의 신지역주의의 맥락에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지역주의를 검토하여 그 고유한 특질을 밝힌다. 3장에서는 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 지역주의와 지역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진행과정을 서구지향 지역주의와의 관련성을 통해 설명하고 그 발전과정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유라시아 통합과정에서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실체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성격 및 방향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II. 신지역주의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지역주의

A. 글로벌화 시대의 신지역주의

1950년대 이후 무역블록은 지역주의 논의의 기본적 이슈였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따르면, 지역 무역협정은 종종 차선(second best)으로 간주되며, 그 협정이 폐쇄적인 다자무역체제에 기여하는지 혹은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악이 판단되었다. 이는 이른바 ‘장애(stumbling block)’ 대 ‘디딤돌(steping stone)’의 이분법으로 구체화되었

7) E. Vinokurov (2010), pp. 20-27.

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역주의시기에 존재했던 많은 지역 무역협정은 내향적이고 보호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학자로부터 종종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ECLA(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와 결합된 개발사과의 흐름과 UNCTAD(유엔개발무역회의)의 전략에서 그러한 지역 무역협정은 산업생산을 높이는 수단으로 널리 간주되었다. 이 과정의 정점에서 신국제경제질서(NIEO)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지역주의는 불평등한 세계 질서에 대응하는 글로벌 동원의 한 형태로 발전했으나, 그 과정에서 그 힘을 상당 정도 상실했다.

1980년대 중반 지역주의가 부활했을 때, ‘새로운 보호주의’ 대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치 하에서 ‘장애’ 대 ‘디딤돌’의 이분법이 다시 등장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주의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이 새로운 보호주의를 선도하는 것을 우려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당초 지역주의의 새로운 파도를 ‘새로운 보호주의’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지역주의는 그것이 보호주의 또는 신중상주의의 부활을 의미했다는 의미에서 새로웠다. 한편, 자유주의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최근의 지역주의가 ‘개방적 지역주의’이며, 통합 프로젝트는 시장 주도로 외부로 향한 것이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는 피해야 하고,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화 과정의 일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로의 최근의 경향을 지지하는 다수의 경제학자와 자유주의 지향의 국제정치경제학(IPE) 학자가 있다.⁸⁾

미텔만(Mittelman)이 지적하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역주의는 주변부 지역과 그 개발·통합 모델에 관해 초기의 자기중심적인 지역주의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탈 연결과 집단적 자립을 요구했다.⁹⁾

8) B. Hettne and F. Soderbaum, “The future of regionalism: Old divides, new frontiers,” in Cooper, H. Andrew and P. De Lombaerde (eds.), *Regionalisation and Global Governance: The taming of Globalisation* (Abingdon: Routledge, 2008), p. 71.

9) J. Mittelman, “Rethinking the ‘New Regionalism’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Hettne, Bjorn, Andras, Inoai, and Sunkel, Osvald (eds.). *Globalism and the New*

최근의 경향은 지역주의의 ‘제2의 파도’ 또는 ‘신지역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헤트네에 따르면, 몇 가지 면에서 첫 번째 파도와 다르다. 즉 “‘구’ 지역주의와 ‘신’ 지역주의의 두드러진 차이는 . . . 최근의 지역화 과정은 더욱 ‘아래로부터’, 그리고 이전보다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이고 안보의 강제력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적 틀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국가와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는 더 이상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형태의 제도, 조직, 운동이다. 또한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내향적이라기보다 외향적이다. 이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강한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신지역주의는 내향적이라기보다 외향적이며,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서로 관계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과 의견은 다양하다. 1990년대 초기와 중기의 많은 논의는 ‘구 지역주의’의 문제를 의제에 올려놓는 경향이 있었다. 즉 지역주의는 글로벌화에 장애로 작용했는가, 아니면 발판이었는가? 다국간주의(다자주의)를 향상시켰는가? 그러나 다소 최근의 많은 연구는 이러한 직선적, 일원적 모순을 뛰어넘어 진행되었고, 글로벌화와 지역화의 다각적인 관계와 중층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새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¹¹⁾

신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광범위한 대외적 제후를 가지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¹²⁾는 점이다. 더욱이 1960년대의 구 지역주의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많은 적든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1999, p. 27.

- 10) B. Hettne, “The New Regionalism: A Prologue,” in Hettne, Bjorn, Andras, Inoai, and Sunkel, Osvald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1999), p. xviii.
- 11) F. Soderbaum, “Introduction: Theories of New Regionalism,” in Soderbaum, Fredrik and Shaw, Timothy M. (eds.). *Theories of New Regionalism* (New York: Palgrave, 2003), p. 5.
- 12) J. Mittelman, *The Globalization Syndrome: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 113.

가 많다. 구 지역주의가 일반적으로 목적과 내용에 있어 특수할 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결정과 안보동맹이라는 협애한 관점을 보였지만, 신지역주의의 수와 범위 및 다양성은 과거 10년간 상당히 확대되었다.¹³⁾ 결국 신지역주의는 유럽 중심주의적이고 협애한 구 지역주의에 비해 글로벌적인 동시에 다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신지역주의 이론은 지역주의 사이의 밀접한 관계와 더불어 지역을 초월한 환경, 특히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많은 점에서 구 지역주의, 특히 신기능주의의 주요 변수와 단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기능주의는 마치 지역이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던 듯이 다름으로써 종종 글로벌 환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구 지역주의가 기반을 둔 종래의 양극적인 냉전의 맥락과 냉전 이후 최근의 맥락 간의 기본적 차이가 강조된다.¹⁴⁾

이와 같이 현대의 지역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 국가 행위자,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간의 일련의 공식/비공식적인 중간 수준의 ‘3자’ 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관계 또는 트랜스내셔널 관계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¹⁵⁾ 동시에 ‘신지역주의’는 글로벌리즘 그 자체보다, 안보, 개발, 생태학적인 지속 가능성과 같은 ‘세계적 여러 가치’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⁶⁾

B.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소연방 붕괴 이래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은 지역적 자유무역블록을 결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마침내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유라시아

13) B. Hettne (1999), Chapter 2; M. Schulz, F. Soderbaum and J. Ojendal, “Introduc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Regionalization,” in M. Schulz, F. Soderbaum and J. Ojendal (eds.), *Regionalization in a Globalizing World: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forms, actors, and processes* (London: Zed Books, 2001)을 참조.

14) F. Soderbaum (2003), p. 4.

15) F. Soderbaum (2003)을 참조.

16) B. Hettne (1999), p. xvi.

경제연합(EAEU)을 공식 출범시켰는데,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94년 처음으로 구상을 제기한 이래 20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출범 시점에 이 기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가 가입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2005년 5월 21일 가입 협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8월 12일 유라시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 경제동맹은 WTO 룰에 기초하고 EU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경제통합 프로젝트로 2010년의 관세동맹의 결성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4년 12월 23일 크렘린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기구의 출범을 예고하면서 2025년까지 에너지 및 금융시장을 통합한 광범위한 경제공간을 건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¹⁷⁾

글로벌화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모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경제가 글로벌 수준에서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 현대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 수 없으며, 여기서 전 세계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붕괴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맥락에서 보면, 소비에트 계획경제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진행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노동생산성이나 최종상품의 품질 면에서 서방과 경쟁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스스로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것이다.¹⁸⁾

포스트소비에트 유라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은 세계 다른 곳의 유사한 발전과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신지역주의는 경제적 도전, 안보 딜레마, 글로벌 시대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를 향한 새로운 방식이다. 국제정치경제학에서 신지역주의(NR) 접근의 옹호자들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안

17)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국제 석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발전은 일정한 지체를 보이고 있다.

18) M. Molchanov,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the Post-Soviet Space,” *Studies in Post-Communism*, Occasional Paper No. 9 (2005), p. 5.

보적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적 삶의 복합적인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신지역주의 전략은 “지역 건설, 지역 응집력, 그리고 지역 정체성 확립이라는 전략적인 목표”에 집중한다.¹⁹⁾ 유라시아 지역주의는 서방 중심의 글로벌화에 대한수단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보완하려 하는가? 유라시아 국가들은 글로벌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어디에 속하여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들 의문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구체적 실체로 등장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그 발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유라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직면한 현재의 딜레마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대응은 한때 동일한 단일경제공간에 속했던 여타 구소련 방 공화국들과의 지역적 유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는 별개로, 현재 국경을 넘어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은 ‘생산연관의 복원’과 같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관세의 철폐와 이중과세의 방지, R&D 노력의 통합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최선의 협력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문제는 세계적인 학술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탈공산주의 이행과 관련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다. 중동부유럽 경제의 지역화는 EU의 동방확대정책에 관한 연구범위의 확대과정을 통해 EU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졌으며, 그것은 대체로 글로벌 경제추세에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구소련 국가의 지역통합은 대개 편협한 경향으로 묘사되었는데, 즉 글로벌한 개방성과 세계시장에의 통합에서 벗어나 소비에트 시기의 고립이나 준고립을 향한 퇴행적인 움직임이며 결국 러시아 스스로 자주 언급하는 ‘제국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대안적인 동맹을 결성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바람직한 방향의 움직임으로

19) M. Molchanov (2014), p. 2.

평가되었다.²⁰⁾

유라시아에서의 지역화 시도는 유럽통합 담론이 이식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와 그 제도적 확산에 의해 알려진 측면이 강하다. 이와 동시에 지역통합과 관련된 이 지역의 인식은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오랜 경기침체 이후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 모델의 붕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사건은 역내와 역외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색을 추구해 온 러시아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대안적인 지역화의 대표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²¹⁾

Ⅲ. 유라시아주의와 유라시아의 지역화

A. 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주의는 여러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즉 문명에 관한 철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관세동맹 측면의 경제적인 정책 수준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소련이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이후 ‘유라시아’라는 명칭으로 이 공간의 유럽 부분과 아시아 부분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틀을 짜기 위한 모색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의 통합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대한 관심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1920년대 러시아의 일군의 역사가(예를 들면, 트루베츠코이(Н. Трубецкой), 사비츠키(П. Савицкий), 카르사빈(Л. Карсавин), 베르나츠키(Г. Вернацкий))의 이론적 연구를 되살아나게 한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대표자들은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의 종합체로서 ‘유라시아’로 간주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러시아를 유럽보다 아시아에 문화적으로 더욱 가까운 것으로 간주했다. 유라시아주의에 따르면, 유럽-아시아를 종합한

20) M. Molchanov (2005), p. 7.

21) M. Molchanov (2014), p. 2.

결과는 이른바 특수한 문화적 유형으로서의 제3세계이다. 따라서 ‘러시아적 세계’의 사람들은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련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위기는 유라시아 구상을 현재화시키는 동기가 되었다.²²⁾ 그 시기에 레프 구밀료프(Л. Гумилёв), 두긴(А. Дугин) 등과 같은 저명한 학자가 등장하여 유라시아 개념을 발전시켰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와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과정에 대한 그들은 견해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매우 많은 자유주의 원칙을 흡수했다. 그 후 페레스트로이카시기 동안 사하로프(А. Сахаров)는 소련을 유라시아합중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메리카합중국에 기초한 모델이었다. 그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사회구성체는 “유럽·아시아 소비에트공화국동맹”이라는 새로운 헌정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두 세대의 유라시아 인을 잇는 공통의 규범이 된 것은 유라시아 공간의 통합과 보전으로서, 여기에는 모든 외부세계의 발전양식을 부정한 구상도 있고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채용한 구상도 있다.

유라시아 구상은 당대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지도자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그들은 신유라시아주의(neo-Eurasianism)의 비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으며 새로운 글로벌 사고의 관점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위한 논거를 개념적으로 정립했다.²⁴⁾

푸틴의 유라시아경제연합 프로젝트를 위한 이론적 기초는 다극적인 세계질서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다. 여기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유럽과 아태지역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글로벌 극이자 효과적인 연결부로 상정된다. 사실상 목표는 유라

22)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와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제39권 4호 (2016), 249-258쪽을 참조. 김성진은 신유라시아주의를 “문화적 신유라시아주의”와 “지정학적 신유라시아주의”, 그리고 “비러시아 유라시아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23) А. Сахаров, “Проект Конституции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 Европы и Азии,” http://www.yabloko.ru/Themes/History/sakharov_const.html (검색일: 2016.02.21).

24) M. Lagutina, “Eurasian Economic Union Foundation: Issues of Global Regionalization,” *Eurasia Border Review*, Vol. 5, No. 1 (2014), p. 102.

시아경제연합을 글로벌 통합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하나로 전환시켜 점차 그것을 글로벌 지역으로 형성시키는 것이다.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동되는 개념적인 프로젝트에 관해 얘기할 수 있다. 즉, 1) ‘글로벌성(globality)’, 즉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문명 간의 대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다양성 속의 통일, 2) 거대 네오유라시아 공간의 현대화를 위한 도구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인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유라시아근린정책(Eurasian neighborhood)’), 3) 네오유라시아 통합 참가국 간 다채널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수준의 통합(개방적 지역주의)이 그것이다.²⁵⁾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개념은 글로벌 지역화의 맥락에서 성공적인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21세기에 들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²⁶⁾ 이 논리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글로벌 발전추세의 맥락에서 글로벌 파워의 성공적인 중심으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전경향은 지역동맹의 형태로 정치적 자기조직화를 의미하며 세계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관된 국내 제도와 잘 고려된 대외정책에 근거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새로운 세계구조의 유기적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구상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새로운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새로운 ‘관료주의적 장치’가 아니라 고유의 유효한 메커니즘을 가진 경쟁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프로젝트를 EU와 아시아 경제 사이의 연결고리(связующее звено)로 생각한다고 밝혔다.²⁷⁾ 오늘날 러시아와 유라시아통합 참가국들은 사실상 두 개의 강력한 중심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한편으로 자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새로

25) Путин (2011a).

26) Назарбаев (2011).

27) А. Лукашенко,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создается для интеграции ЕС и азиатских экономик,” Взгляд (2 июля 2012), <http://vz.ru/news/2012/7/2/586530.html> (검색일: 2015.12.20.)

운 경제적·군사정치적 거대국가 중국,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요 세력인 유럽이 그것이다. 통합된 중심을 창설하지 않은 채 ‘약한 유라시아 중심(즉,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을 가진 단일의 유럽-아시아태평양 협력모델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들 3개국의 통합 잠재력을 고려하면 글로벌 세계에서 존립할 수 있는 동맹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치 있는 세력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핵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끌어들이야 한다.

그러므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 글로벌 지역화의 개념, 2) 다극적인 세계질서, 3) 심장지대(Heartland)라는 지정학적인 개념은 현대의 네오유라시아 통합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구상의 기원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통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국제지역구조의 창설 구상은 소련 붕괴 직후에 가장 먼저 제기되었는데, 당시 수많은 지역기구와 협력그룹이 출현했다. 즉, 독립국가연합(CIS),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GUAM 등이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들 구조 내부의 통합의 속도와 수준은 대단히 다양했고, 어떤 통합의 틀도 유럽연합(EU)이 도달한 초국가적 거버넌스와 정부간 거버넌스라는 두 가지 양식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²⁸⁾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1세기 초는 원심력 경향에 의해 특징지어졌는데, 이는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여 구소련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했다.²⁹⁾

28) S. Blockmans, H. Kostanyan and I. Vorobiov, “Towards a Eurasian Economic Union: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and Unity,” *CEPS Special Report 75*, 2012를 참조.

29) 라구티나(Lagutina)는 구소련의 모든 통합 프로젝트를 무력화시킨 분열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명확한 통합 목표의 부재, 2) 경제성장의 수준과 속도 면에서 통합 참가국 간의 현격한 차이, 3) 구소련 통합을 위한 실용주의적, 이론적인 토대의 결여, 4) 구소비에트 공화국의 정치엘리트들이 드러낸 국익에 대한 취약한 인식, 5) 다양한 통합단위 간에 통합의 수준과 방향을 둘러싼 불일치, 6) 국가기구, 비즈니스계, 시민사회 등의 낮은

현대의 유라시아주의는 문화적·문명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우선 경제적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통합을 이루어낼 것을 제시한다. 통합의 잠재력을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합의 이익을 모든 참가국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과 제약 하에서 오늘날의 유라시아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는 회원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그 해석이 대단히 변형된 유라시아 구상을 다루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구상을 담으면서 구소련 사회의 특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유라시아의 글로벌 지역화 모델을 위한 탐구는 진행 중에 있다.”³⁰⁾

B.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화

소련의 해체는 세계 정치체제를 처음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변화시켰다. 그 후에는 지역 블록화의 증가와 좀 더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경 없는 무역과 정치의 탈 영역화가 ‘글로벌화’의 역동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지역적인 협력형태가 국제적인 정치·경제 조직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다.³¹⁾ 2016년 1월 1일 현재, 총 267개의 지역 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고, 이들 협정은 세계 전체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망라한다.³²⁾

서구 정치학계에서 발전한 신지역주의 접근은 지역(regions)을 국민국가를 계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의 선행이 대표적인 모델로 거론된다. 지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측면에

수준의 통합 조직이 그것이다. M. Lagutina(2014), p. 103을 참조.

30) M. Lagutina (2014), p. 104.

31) P. Katzenstein,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32)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 2016.01.23)을 참조.

서 EU는 강한 기반을 가졌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틀(EU에서 이것은 걸림돌이 되었다)과 정치적·사회적 연계(EU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를 필요로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은 이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소를 결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지역화의 틀에 아주 적합하게 될 것이다.³³⁾

예를 들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큰 규모의 국내적인 내부시장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낮은 초국적 지수(transnationality index)를 가지고 있다.³⁴⁾ 다른 한편,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그 발전과정에서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경제력 격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모든 국가들은 제정러시아와 소련에서 계승된 공통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강한 국가 지도자가 공공의 후생을 제공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번영을 담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사고와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 엘리트들의 일체감을 약화시켰다.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는, 공통의 언어와 역사를 가진 러시아 문명과 연결된 강한 국민적 정체성이 존재한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비록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와 공존해 왔지만 러시아정교(正敎)는 이들 국가의 슬라브 민족에게 공통의 종교적인 역사를 형성한다. 또한 공동의 ‘타자-패권국인 미국과 그 서구동맹-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구소련에서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발전은 소련의 붕괴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구소련 지역의 통합은 처음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접근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문명화된 결별’의 논리는 신생 독립국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을 완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연관을 해체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한편, 구소련에서 등장한 각종 지역 프로젝트는 종종 ‘새로운’

33) D. Lane, “Eurasian Integration: A Viable new Regionalism?”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46 (2014), p. 5.

34) 외국기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의 지역통합을 옹호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는데, 대개 유럽연합(EU)의 사례에 기초하여 모델화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지역통합 협정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는데, 대체로 목표와 범위 면에서는 매우 유사했지만 가입국 구성의 면에서는 상이했다. 앞서 통합을 위한 ‘중핵국가’와 ‘다양한 속도’로 통합하려는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협정이 확산되었지만, 지금껏 ‘중핵국가’를 찾아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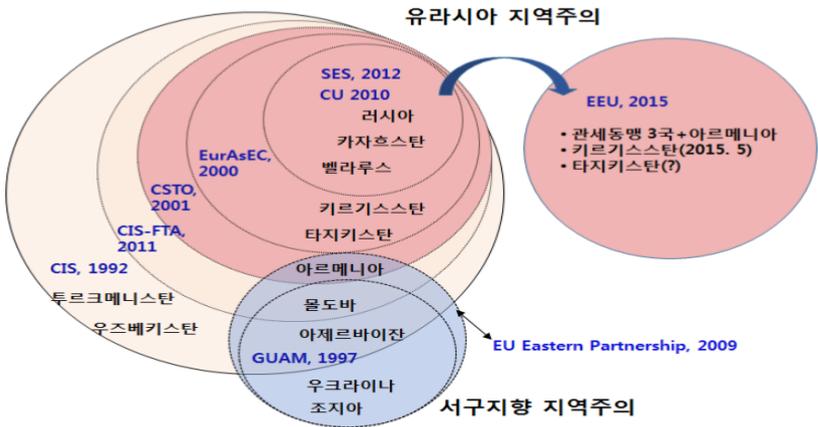
[그림 1]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의 지역기구 가입을 둘러싼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두 가지의 지역주의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형식이 다양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주의의 틀 내에서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핵심 3개국 혹은 첫 번째 층을 형성한다. 그 다음 층위는 유라시아 5개국으로, 핵심 3개국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합한 것이다.³⁶⁾ 이들 5개국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회원국이었고 안보적 차원에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회원국이다. 아르메니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또한 유라시아 5개국과 함께 유라시아 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EurAsEC에서는 옵서버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2011년에 체결된 CIS 자유무역협정(CIS FTA)의 회원국이다. CSTO의 회원국이기도 한 아르메니아는 유라시아 지역주의 쪽에 더욱 경사되어 결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했지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한편으로 유라시아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지향 지역주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GUAM과 유럽동방파트너십(European

35) A. Libman and E. Vinokurov,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Convergence in the Post-Soviet Space: Experience of the Decade of Growt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0. No. 1 (2012), p. 113.

36) 무역, 투자, 자본이동, 이주노동 등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국가 간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이상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원심력과 구심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4권 2호 (2014), 247-269쪽.

Eastern Partnership)의 참가국이다.³⁷⁾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뒤이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CIS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CIS FTA를 탈퇴하지는 않았다.

[그림 1] 구소련 국가의 지역주의와 지역기구 가입 상황
(원심력 對 구심력, 확대와 심화)



출처: Moldashev and Gulam Hassan, “The Eurasian union: actor in the ma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doi:10.1057/jird. (2015.6), p. 8을 참조

2010년의 3개국 관세동맹과 2012년의 3개국 단일경제공간, 공통역외관세의 채택, 관세동맹 3개국 간의 관세국경 제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참여 등은 최근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간의 지역화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발전에 속한다. 전 세계적인 지역화의 동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형태의 경제협력이 일반적이지만, EU와 MERCOSUR, 3개국 관세동맹 등의 일부 지역조직체만이 공통역외관세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그 다음

37)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의 유라시아 지역통합 및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딜레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우준모 · 김종현, “유라시아 지역 통합체 건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18권 5호 (2015.1), 59-78쪽.

단계는 2015년 1월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창설이었다. 이 설립조약은 2014년 5월 29일에 체결되어 기존의 관세동맹(CU)과 단일경제공간(SES)이 이 조약에 통합되었으며, 현재까지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이 기구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IV. 유라시아 통합 과정에서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지금까지 구소련에서 진행된 통합 시도 가운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가장 앞서 나간 지경학적·지정학적 프로젝트이며, 오늘날의 유라시아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문화·교육적 잠재력을 공고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유라시아연합(EAU)의 창설은……1991년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착수한 가장 야심적인 지역통합 프로젝트를 대표한다.”³⁹⁾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1월을 기해 이미 새로운 단계의 통합이 시작되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결성을 향한 첫 단계는 관세동맹(CU)이 설립된 2010년이였다. 이 단계에서 공동관세구역과 공동관세법이 확립되었다. 관세동맹위원회에 관한 조약(2007년)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출신의 부총리급 각 1명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했다.

유라시아 통합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2012년 1월의 공동경제구역(CES)의 창설이었다. 그 목표는 재화,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을 위한 공동시장의

38) 강봉구(2014)는 EAEU의 출범을 EU와의 정체성 대립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EU와 EAEU 사이의 정체성 대립 전선의 형성과 러시아의 비(반)서방적 정체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EAEU의 출범을 분석한다. 강봉구,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EU: 정체성 대립의 새로운 전선.” 『슬라브 연구』, 제30권 4호 (2014), 1-28쪽을 참조.

39) S. Blockmans, H. Kostanyan and I. Vorobiov (2012).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경제구역은 회원국의 의회, 비즈니스계 및 시민 간의 협력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문화와 같은 영역과 지역간·월경 협력의 유효한 패턴의 형성, 그리고 대외정책 분야의 협력의 발전 등이 포함된다.

유라시아 통합을 향한 그 다음 단계는 2015년 1월에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었다. 관세동맹(CU)과 공동경제구역(CES)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기반이 되었다. 2015년에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역량은 만만치 않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은 2,000만 km²를 넘는 영토(세계 총 면적의 15%)와 약 1억 8,200만 명의 인구(2015년)를 포괄한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 국가는 천연가스(221억 m³) 및 석유(1,500만 톤) 생산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이다. 바로 이 때문에 현재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세계에서 지경학적 중심이 될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13년 10월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3개국 지도자에 의해 지지를 얻었다. 이 회담에서는 유라시아 통합의 관점과 현재의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담 참석자들은 관세동맹 회원국을 가능한 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관해 볼 때,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견해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였으며 그에 따른 러시아 헤게모니의 위험이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러시아의 지분(자원, 영토, 인구, 경제, 산업-군수시스템 등)은 향후 연합체의 총 잠재력에 대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이를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EU, NAFTA, MERCOSUR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들 각 동맹체는 강력한 주도국(각각 독일, 미국, 그리고 브라질)을 갖고 있으며 이들 주도국은 많은 지수에서 동맹국들을 훨씬 앞서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⁴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역주의 이론에 따르면, 통합은 주도국이 통합을 열망하게 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

며 ... 그러한 모델은 이 지역에서 통합의 중핵을 구성하게 될 일군의 국가뿐만 아니라 단일국가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⁴¹⁾ 유라시아 통합공간의 경우 모든 것이 그리 분명하지 않으며, 따라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주도국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웃국가에 대한 기부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네오유라시아 통합 내에서 러시아의 하위지역 전략의 근저에는 민주주의적 원칙과 실용주의적 결정이 놓여 있다.⁴²⁾ 카자흐스탄에 관한 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으로는 중심에 대한 주변부의 종속이라는 구소련 모델로의 회귀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소련의 ‘부활’이나 ‘재생’을 특징으로 갖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에서 안보 이슈의 중요성과 낮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은 카자흐스탄 정부로 하여금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회원국에게 “외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정보·기술적, 생태적 위험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⁴³⁾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다른 국가보다 앞서 관세동맹과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국가들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정상은 2013년 10월 민스크에서 개최된 관세동맹 정상회담에 초청되었다.

40) M. Lagutina (2014), pp. 105-106.

41) И. Корабоев, “От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 Евразийскому интеграционному пространству? Меняющаяся динамика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регионализма,”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 3, т. 8 (август 2010), стр. 23.

42) Д. Тренин, *Post-Imperium: Евразийская история* (Москва: Центр Карнеги, РОССПЭН, 2012).

43) С. Бирюков,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как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вклад и знач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Евразия* (24 мая 2012), <http://evrazia.org/article/1990> (검색일: 2016.02.1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관심을 표명한 또 다른 국가는 아르메니아였다. 아르메니아의 사르그산 대통령은 2013년 가을 관세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⁴⁴⁾ 아르메니아는 중앙아시아의 두 국가에 앞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한 다음 날인 2015년 1월 2일에 통합기구에 가입했다. 중앙아시아 두 국가의 유라시아경제연합에의 가입은 이들 국가의 경제의 후진성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제로 여겨졌지만,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8월 EAEU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먼저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라시아 통합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역할과 그 참여 여부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두긴(A. Дугин)은 유라시아연합(EAU)의 성공은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지지와 더불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EU와의 통합을 지향해 왔다. ‘유럽동방파트너십’ 정상회담 전야에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러시아의 크림병합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6월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⁴⁶⁾

44) 유라시아개발은행(EABD)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인 중 67%는 관세동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반면, 5%만이 가입을 반대한다. 아르메니아의 관세동맹 가입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경제 현대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을 참조. “Арм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 выгодно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Таможенному союзу,” *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11 Сентября 2013), http://www.eabr.org/r/press_center/publish_about_bank/index.php?id_4=31991&from_4=9. (검색일: 2016.01.20).

45)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트라이앵글은 전체 구조(건축물)에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배치이다. 다수의 EU 국가들은 이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글로벌한 전략적 토대에 기초하여 동유럽에서 진행된 과정의 조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친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유럽에 대항하는 제스처가 아니라 두 슬라브 국가의 친 유럽정책 표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Дугин, “Семь смыслов евразийства,” *Евразия*, <http://evrazia.org/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1904>. (검색일: 2015.12.21.)

46) 이를 둘러싸고 유라시아 통합을 이끄는 각 지도자의 견해는 나뉘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사실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유럽과 통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조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명하면, EU로부터의 복제품 수입을 겪

유라시아 지역의 글로벌 지역화를 논의할 때, 유라시아 지역에 속하는 국가를 구소련 국가로 한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것이다. ‘영토’가 아닌 ‘공간’의 창출과 통합이라는 명제에 근거하고 있는 글로벌 지역화의 개념은 국경을 공유하진 않지만 공통의 문제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글로벌 지역의 틀 내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으로 하여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바깥의 국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터키와 함께 시리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시키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⁴⁷⁾ 그 후 푸틴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인도 총리는 2013년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러시아 지도자에게 관세동맹(CU)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찾도록 제안했다고 한다. 따라서 인도 및 터키를 고려하여 유라시아 통합의 공간을 확대하면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프로젝트는 더욱 큰 ‘글로벌적 성격’을 획득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베트남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유라시아 통합의 공간적 확대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심과 소련을 부활시키려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지도자들의 욕망과 관련된 각종 억측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프로젝트는 질적으로 새로운 통합, 즉 구소련 시대의 통합에서 유라시아 시대의 통합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것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여 구소련 국가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지정학적 범위 외부에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⁴⁸⁾ 이 과정에서 유라시아의 시민사회와 비즈니스

을 것이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제조업자가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러시아의 입장은 대단히 단호하다(M. Lagutina, 2014: 108).

47) “중동 서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관세동맹을 가장하여 소련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무익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터키를 가입시키도록 하자. 터키는 대국이므로 불편한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을 참조. “Суверенитет не икона,” 24 Октября 2013. <http://www.gazeta.ru/business/2013/10/24/5722545.shtml>. (검색일: 2015.12.21.)

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현대 세계발전의 새로운 경향(예를 들면, 글로벌화, 월경국가화, 정보화 등)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시공간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미래를 고려할 경우, 전체 구소련/유라시아 지역을 휩쓴 최근의 과거와 그 해체과정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사적 시기에서 나오는 주요 시사점의 하나는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전체주의적 성격은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전의 시도들은 서유럽의 통합 형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진화적인 통합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데 실패했다. 바로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비즈니스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기구에만 의지하여 유라시아 통합의 틀을 설정하는 것은 근대성의 면에서 결국 무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의존적인 유라시아 지역에서 건설한 통합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국가 행위자이다. 그러한 통합 환경은 한편으로 역사적 친근성에 뿌리를 두고 서로 뒤얽힌 불가분의 이해관계(예를 들면,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 등)를 기초로 형성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발전(예를 들면, 정보의 투명성, 인적 이동성, 시장 요인)이 가진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V. 결론

오늘날의 세계에서 글로벌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동시장을 통해 장애와 제약을 극복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에서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통

48) 이와 관련하여 성원용(2015)은 “EEU 출범이란 사실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원용,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해체와 재통합: EEU 출범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분석,”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 (2015), 140쪽.

합의 틀 내에 참여하든 독자적으로 행동하든 전 세계에 걸쳐 대다수 국가는 경제적 동기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EAEU라는 통합의 틀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기초를 이루는 동기는 통합의 틀 내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글로벌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글로벌 지역화의 맥락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할 경우,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EAEU 프로젝트는 글로벌화의 '도전'에 대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글로벌 사고의 관점에서 EAEU의 개념적 근거는 세 가지 이론적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글로벌 지역화, 다극적인 세계, 그리고 심장지대(Heartland)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그것이다. 글로벌 지역화의 개념은 국경을 접하지 않더라도 공통의 문제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글로벌 지역의 틀 내에서 통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다극적인 세계질서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로서, EAEU를 글로벌 통합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하나로 전환시키고 점차 그것을 글로벌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매킨더(H. Makinder)에서 비롯된 심장지대 개념은 유라시아 지역이 향후 세계질서의 변화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EAEU 내에서 정부 간 협력은 모든 구소련/유라시아 국가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정부와 국가하위 및 초국가적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교차하는 통합 프로젝트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구소련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국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구소련의 부활 혹은 소생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AEU가 2015년 5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향후 이 기구가 글로벌 지역화를 향해 추구해 나가게 될 한 가지 방향을 알려준다.

셋째, EAEU는 글로벌 지역으로 이루어진 다극 체제에서 의미 있는 일극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EAEU는 유럽과 아태지역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글로벌 극이자 효과적인 연결부로 상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EAEU의 미래는 유럽과 아태지역 간에 유의미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정치 기구로 발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EAEU는 글로벌 세계에서 존립 가능한 유효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라시아 통합과정은 지금까지 주로 ‘하향식(from top to bottom)’ 접근을 통해 진전되어 왔는데, 관세동맹 3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통합의 과정과 동기에서는 또한 ‘상향식(from the bottom)’ 접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즈니스계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의 경제위기는 비즈니스계가 현행 유라시아 통합을 이끌어나가는 추동력의 하나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계는 통합과정 및 통합 시스템 내부에서 중요한 추동력의 하나이며, 향후 전체 지역에 걸쳐 이 통합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유라시아 통합과정의 과제로 지적되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서구 모델의 대안을 추구하는 구조권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정치구조를 지속하는 한편, 서구 문명의 주요 업적(권력분립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와 법의 지배 등)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EAEU가 주창하는 모델의 가치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모든 권위주의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적인 조치를 지속하면서 그러한 자유의 부정을 정당화한다. 정치적 자유가 인간의 최고 목표를 대변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 자유가 불필요하다거나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내외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더러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AEU가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비서구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가치체계의 정립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자유를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구.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EU: 정체성 대립의 새로운 전선.” 『슬라브 연구』, 제30권 4호 (2014), 1-28쪽.
-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제39권 4호 (2016), 245-285쪽.
- 김영진 · 윤인하.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 유라시아연합 구상의 조건과 과제.” 『동유럽발칸연구』, 제38권 5호 (2014), 201-230쪽.
- 성원용.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해체와 재통합: EEU 출범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분석.”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 (2015), 117-146쪽.
- 우준모, 김종현. “유라시아 지역 통합체 건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18권 5호 (2015.1), 59-78쪽.
- 이상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원심력과 구심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4권 2호 (2014), 247-269쪽.
- Balassa, Bel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Routledge Revivals). New York: Routledge, 1962.
- Blockmans, Steven, Kostanyan, Hrant and Vorobiov, Ievgen. “Towards a Eurasian Economic Union: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and Unity.” *CEPS Special Report* 75, 2012.
- Hettne, Bjorn and Soderbaum, Fredrik. “The future of regionalism: Old divides, new frontiers.” in Cooper, Andrew, Hughes Christopher and De Lombaerde, Philippe (eds.). *Regionalisation and Global Governance: The taming of Globalisation*. Abingdon: Routledge, 2008, pp. 61-79.
- Hettne, Bjorn. “The New Regionalism: A Prologue.” in Hettne, Bjorn, Andras, Inoai, and Sunkel, Osvald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1999.

- Katzenstein, Peter J.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Kobrinakaya, I. "The Post-Soviet Space: From the USSR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Beyond." in Malfliet, K., Verpoest, L. and Vinokurov, E. (eds.). *The CIS, the EU and Russia: Challenges of Integr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 Lagutina, Maria. "Eurasian Economic Union Foundation: Issues of Global Regionalization." *Eurasia Border Review*, Vol. 5, No. 1 (2014), pp. 95-111.
- Lane, David. "Eurasian Integration: A Viable new Regionalism?"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46 (2014), pp. 3-7.
- Libman, Alexander and Vinokurov, Evgeny.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Convergence in the Post-Soviet Space: Experience of the Decade of Growt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0. No. 1 (2012), pp. 112-128
- Lukin, Alexander. "Eurasian Integration and the Clash of Values."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6, No. 3 (2014), pp. 43-60.
- Mittelman, James. "Rethinking the 'New Regionalism'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Hettne, Bjorn, Andras, Inoai, and Sunkel, Osvald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London: Macmillan, 1999, pp. 25-53.
- Mittelman, J. H. *The Globalization Syndrome: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Molchanov, M.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the Post-Soviet Space." *Studies in Post-Communism* (Centre for Post-Communist Studies,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Occasional Paper No. 9 (2005).

- Molchanov, M. "The Eurasian Union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regional order in Central Asia."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FLASCO-ISA Joint Conference, Buenos Aires, Argentina (July 23-23, 2014).
- Moldashev, Kairat and Gulam Hassan, Mohamed-Aslam. "The Eurasian union: actor in the ma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doi:10.1057/jird. (2015.6), pp. 1-23.
- Schulz, M., Soderbaum, F. and Ojendal, J. "Introduc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Regionalization." in Schulz, M., Soderbaum, F. and Ojendal, J. (eds.). *Regionalization in a Globalizing World: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forms, actors, and processes*. London: Zed Books, 2001.
- Soderbaum, Fredrik. "Introduction: Theories of New Regionalism." in Soderbaum, Fredrik and Shaw, Timothy M. (eds.). *Theories of New Regionalism*. New York: Palgrave, 2003, pp. 1-21.
- Soderbaum, Fredrik and Shaw, Timothy M. "Conclusion: What Futures for New Regionalism." in Soderbaum and Shaw (eds.). *Theories of New Regionalism*. Palgrave, 2003, pp. 211-225.
- Vinokurov, Evgeny. "Accelerating Regional Integration: Directions for Research."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10* (2010), pp. 20-27.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 2016.01.23.)
- "Арм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и выгодно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Таможенному союзу)." *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11 Сентября 2013), http://www.eabr.org/r/press_center/publish_about_bank/index.php?id_4=31991&from_4=9 (검색일: 2016.01.20.)
- Бирюков, Сергей.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как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вклад и знач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Евразия* (24 мая 2012),

<http://evrazia.org/article/1990> (검색일: 2016.02.15.)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2015) “Мы объявили войну теоретическому либерализму, а либерализм в ответ подверг нас санкциям,” *Евразия* (13 марта 2015), <http://evrazia.org/article/2642> (검색일: 2015.12.21.)

Дугин, Александр “Семь смыслов евразийства.” *Евразия*, http://yanko.lib.ru/books/politologiya/dugin-geopolitics_postmodern-a.htm#_Toc185403801 (검색일: 2015.12.2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Цифры и факты, 2015.”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2015),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Documents/EEC_dig_facts1.pdf (검색일: 2016.01.20.)

Корабоев, Икболжон. “От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 Евразийскому интеграционному пространству? Меняющаяся динамика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регионализма.”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3 8, т. 8 (август 2010), стр. 5-32.

Кузнецов, Александр.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 шаг на пути к многополярному миру,” *Геополитика* (5 марта 2012), <http://geopolitica.ru/Articles/1385/> (검색일: 2015.12.20.)

Лукашенко, Александр.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создается для интеграции ЕС и азиатских экономик.” *Взгляд* (2 июля 2012), <http://vz.ru/news/2012/7/2/586530.html> (검색일: 2015.12.20.)

Лукашенко, Александр. “О судьбах нашей интеграции.” *Известия* (17 октября 2011), <http://izvestia.ru/news/504081> (검색일: 2015.12.20.)

Назарбаев, Нурсултан.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от идеи к истории будущего.” *Известия* (25 октября 2011), <http://izvestia.ru/news/504908> (검색일: 2015.12.20.)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Известия* (3 октября 2011a), <http://izvestia.ru/news/502761> (검색일: 2015.12.20.)

-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 это открытый проект,” *Курсом Правды и Единения* (4 октября 2011b), <http://www.kpe.ru/sobytiya-i-mneniya/ocenka-tendencii-s-pozicii-kob/2728-putin-es-eto-otkritiy-proekt> (검색일: 2015.12.20.)
- Сахаров, Андрейю “Проект Конституции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 Европы и Азии.” http://www.yabloko.ru/Themes/History/sakharov_const.html (검색일: 2016.02.21.)
- “Суверенитет не икона.” *Газета.Ru* (24 Октября 2013), <http://www.gazeta.ru/business/2013/10/24/5722545.shtml> (검색일: 2015.12.21.)
- Тренин, Дмитрий. *Post-Imperium: Евразийская история*. Москва: Центр Карнеги, РОССПЭН, 2012.

<Abstract>

Perspectives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EAEU) in the Context of Regionalism and Regionalization

Kim, Young Jin*

This paper aims to examine Eurasian regionalism and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new regionalism and global regionalization. If we consider nature and meaning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deriv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 EAEU project can be understood as a response from the post-Soviet space against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nd,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EAEU depends on three theoretical pilla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global thoughts: the concept of global regionalization, a multi-polar world, and the geo-political concept of the Heartland. Secondl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the EAEU must be based on various intersecting integration projects participated by governments, sub-governmental and supra-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inclusion of other countries into the regional organization, without limiting to the former-Soviet countries, can be an effective way to eliminate the criticism such as a resurrection of the USSR. Thirdly, the EAEU project is currently pursuing a meaningful status of a key pole in a multi-polar system comprised of global regions. As regards this, future of the EAEU depends on whether it could be evolved into an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zation which can promote effective dialogue between Europe and the Asia-Pacific region. Fourthly, the

* Hanyang University.

Eurasian integration process has currently developing mainly “from top to bottom” and leaders of the three Customs Union countries, such as Russia, Kazakhstan and Belarus, have played a major role. However, “from the bottom” approach also can be found in the process and motivation for the Eurasian integration, and business circl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perspective.

Key words: Regionalism, Regionalization,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Eurasianism, Eurasian Integration

{논문투고일: 2016. 04. 10}

{심사의뢰일: 2016. 04. 14}

{게재확정일: 2016. 05. 09}